

## 여성 노인의 슬픔

김 귀 분\* · 이 경 호\*\* · 오 혜 경\*\*\*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의학과 경제수준의 발달로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 (337만 명)에 이르러 UN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753만 명으로 노인비율이 14.3%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22년만에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Choi, 2001). 특히 노인인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3/5, 70세 이상에서는 2/3가 여자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Hwang, 1990) 여성노인들의 문제가 우리나라 노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는 우리사회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문제는 이제 단순히 노인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는 노년층을 가족이

나 직업, 지역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노인의 고독, 소외감, 우울 등으로 야기되는 슬픔의 감정은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기능의 약화나 질병과 같은 신체적, 생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은퇴와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정,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 심리적 적응문제로 축적되어 일어나는 우울, 소외감, 고독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이다(Kim, 1996).

노년기의 신체, 사회,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적응은 성공적인 노화과정의 핵심이 되며 특히 이 시기에는 내향적, 수동적 태도 및 의존성의 심리적 특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 배우자의 죽음, 자녀와의 별거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지지체계들의 상실로 인해 슬픔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쟁과 가난을 통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문제는 다른 양상을 띄고 나타나게 된다(An, 1997).

슬픔은 인간적, 생물학적, 사회적 상실에 대한 대응 반응으로 정상적인 정서상태이며 슬퍼하는 대상과의 의미있는 관계, 접촉, 사랑의 최종적 가치로 정의된다(Backer, Hannon, & Russell, 1990). 슬픔은 처음에는 충격을 완화하여 신체적으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겸임교수

\*\*\*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 연구소 연구원

투고일 2001년 7월 12일 심사요청일 2001년 7월 25일 심사완료일 2001년 12월 11일

으나 1년 이상 슬퍼하는 사람은 슬픔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한다(Milliken, 1993).

슬픔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정서상태이나 노인의 경우 심해지면 이로 인해 신체적 문제가 나타남과 동시에 혼돈, 불신, 분노, 우울, 죄책감, 불안과 같은 정서적 이상현상을 나타내고 집중능력의 부족, 안절부절, 과민한 태도,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같은 행동양상의 변화를 동반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Browning, 1995). 그리고 슬픔은 인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나 슬픔의 과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남은 자는 황폐화되고 우울이나 자살의 충격 등 병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Kim, 1995). 따라서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경험하게되는 슬픔의 과정을 잘 이해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간호중재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노년기에 초래하는 노인의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로는 상실감, 소외감, 고독감, 두려움, 우울, 불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Ahn, 1997; Park, 1978; Meng, 1985; Kim, 1995; Kim, 1991; Jeon, 1992; Park, 1997; Lee, 1997) 이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슬픔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슬픔이 내재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과정이 되는 반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한 병적인 슬픔은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양상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성 노인들이 경험하는 슬픔에 대해 그들의 생각, 느낌 등을 심층면담을 통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에 관한 의미를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하여 노인들의 질적인 삶을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여성노인들이 경험하는 슬픔에 대한 의미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보다 질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노인의 슬픔의 의미를 파악한다.
- 2) 여성노인의 슬픔의 의미구조를 기술한다.
- 3) 여성노인의 슬픔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간호학적 접근방안을 모색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슬픔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 의미구조를 기술하여 이를 근거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하고자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방안을 이용한 서술적 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자료수집의 편의성을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재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중 사고의 일관성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5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는 현상에 대한 진술이 포화상태에 도달되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65세에서 76세까지이었으며 평균연령은 68세였다. 종교적 상황은 기독교 2명, 천주교 2명, 불교 1명이었고, 학력은 대졸 1명, 고졸 2명, 중졸 2명, 국졸 1명이었다.

### 3. 연구자 훈련과정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고자 연구주제에 적합한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방법이 사용된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 자신이 도구이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훈련을 위하여 기존 문헌에 대한 연구와 박사학위 과정 중 질적간호연구, 간호현상과 질적연구, 횡문화간호 및 면담기법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였고, 박사학위 논문을 통한 질적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학회지에 다수의 질적, 논문발표, 국제 질적 건강연구 학술대회에 참가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연구경험을 쌓아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특히 질적간호연구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술모임을 개최하고 질적논문을 발표하여 학문의 깊이를 심화하였다.

### 4. 연구기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00년 12월부터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른 2001년 4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약속한 장소에서 날짜와 시간에 맞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참여자와 상호 호혜적인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면담시 질문은 비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대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갔다. 면담동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발췌하고 메모하였으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면담장소는 복지관이나 연구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가정방문 또한 시행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한 명당 방문한 횟수는 5회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여성노인의 슬픔을 확인하기 위하여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참여자의 진술을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기술문을 중심으로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여러 번 읽으면서 꼼꼼히 생각한다.
- 2) 기술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돌린다.
- 3)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참여자의 말 그대로 자사의 경험을 표현한 기술의 단위를 중심으로 표현양식이나 어휘는 다르지만 이미 단위들을 규명한다.
- 4) 이러한 단위에서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주제를 규명한다.
- 5)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술단위 내에서 참여자의 경험이 참여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한다.
- 6)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각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구조적 기술을 만든다.
- 7) 상황적·구조적 기술문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구조적 기술을 만든다.

이상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확인된 의미기술이 연구참여자의 의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되돌려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원자료에 의해 확인된 의미구조를 질적 연구방법을 연구하는 간호학

전공교수, 국문학 전공교수의 자문을 받아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였다.

## 6. 연구수행과정에 따른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아 실시하였으며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참여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필사 및 녹음자료는 연구 후 즉시 소멸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도중이라도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여성노인의 슬픔에 대한 의미구조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하고 연구자가 심층면담 및 관찰하여 기술한 여성노인들의 슬픔경험을 기술단위로 하여 주제와 중심의미를 찾아내고 이것에서 각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 1) 상황적 구조적 진술

##### 사례1. 박 ○○ (75세)

참여자는 19세에 결혼하여 2남 3녀를 두었으며 남편과 함께 큰 아들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맺어준 결혼을 한 후 남편의 외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생활로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다섯 자녀를 어렵게 출가시킨 즈음 남편의 거동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건강도 상실하였으며 자식들의 무관심으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현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사례 2. 윤 ○○ (69세)

참여자는 16세에 결혼하여 2남을 두었으며 10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는 남편과 함께 큰 아들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결혼한 후 남편의 무능력과 자신을 향한 무시로 심리적 상처를 많이 당하였다. 남편과 7년간 동거한 여인이 지금도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아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열심히 살아오긴 했으나 지금 돌아보니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은 한평생 고독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사례 3. 이 ○○ (70세)

참여자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50세 죽은 남편과 결혼을 하였으며 2남 2녀를 두었으며 현재 당신 혼자 살고 있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젊은 시절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남편을 잃고 많이 상실되었으며 늘 주위에서 굶실대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곁에서 사라지자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자녀들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을 쏟고 있음에 섭섭함을 심하게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4. 이 ○ ○ (72세)

참여자는 20세에 결혼하여 3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과 큰 아들 내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결혼초기에 다섯 살 된 아들을 잃고 가슴에 묻어둔 자식에 대한 말을 늘 하며 그리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녀에 대한 걱정과 점점 나빠지는 자신의 건강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죽음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 5. 김 ○ ○ (68세)

참여자는 19세에 결혼하여 1남 3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과 아들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젊은 시절,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도는 남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네 자녀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으며 현재는 은몸을 쏘아대는 통증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힘들게 키워 놓은 자식들이 자신을 자상히 돌보아 주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일반적 구조적 기술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한 여성노인의 슬픔의 의미는 '노화로 인한 신체·생리적 변화', '배우자에 대한 불유쾌한 추억', '자녀에 대한 연민', '후회스런 운명', '불확실한 앞으로의 삶'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일반적·구조적 기술로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1>와 같다.

여성노인의 슬픔의 의미구조는 <표 1>에서와 같이 5가지의 중심의미로 분류하여 일반적으로 구조화하였다.

<표 1> 여성노인의 슬픔

중심의미	주 제	원 자 료
노화로 인한 신체·생리적 변화	남편의 불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둡게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남편이 막중한 병에 들었으니까 걱정이라우</li> <li>· 막상 병이 들어놓게 인제 늙은 노후에 살아쓰른 죽음인가 살다가 싶이 불쾌해</li> <li>· 아이구 이렇다가 송장될까 무섭다</li> <li>· 영감님이 병중에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인자 칠전팔기라더니 세번 네번 수술을 하니까.</li> <li>· 오죽이지 뭐인지 늘 지려 미치겠당께</li> <li>· 우리 아저씨도 이라고 아파가고요. 3년 안에 재발되어 별 수 없다고 하네</li> <li>· 원제 암이라는 이름부터가 징그럽고 몸서리가 쳐져서</li> <li>· 이젠 병에 걸리면 다 임이라시 죽겠이</li> <li>· 자꾸 아파싸~ 아파싼디 혈뇨가 나와싸요~우리남편 살려주오</li> <li>· 젊었을 때 술 바닷을 본 분이야 그래갔고 쓸개가 다 녹아서 붙었제.)</li> <li>· 중간에 가다 이양반이 병이 생겨~. 병이 생겨.</li> <li>· 진찰결과 완전히 하체가 차가지고 죽네 사네 했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li> <li>· 참 늙어서 온 몸뚱이 아픈다고 소리질러싸 걱정이 산갈구료</li> <li>· 죽도록 고생만 하고 저렇게 아파하니 내가 어쩔지 알 수가 없다우</li> <li>· 저렇게 먹어싸니 제 몸의 몸도 남아날 수 있을까?</li> </ul>
	자신의 신체적 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게 내 몸이 아프니까 약을 복용하느니라구요. 꼭 필요할 때는 약도 더 먹고.</li> <li>· 나이 먹어 가고 하는 일이라고는 허리가 안 좋아져 가지고는 음. 아무 것도 못하고</li> <li>· 다리 들어도 들은 지도 모르겠고 막 요로코 생겨 다리를 갈을 수도 없제</li> <li>· 막 시집와서부터 이날까지 몸 안좋기 때문에 약이 떨어질 시간이 없어.</li> <li>· 맨 허리가 아프게 썬께 한시 그랬거든 허리가 막 이래</li> <li>· 머리가 아파싸 죽고 못살아</li> <li>· 몸도 쪼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그냥코 이 몸뚱아리가 왜 그러는지</li> <li>· 못먹겠어 안 먹혀 붙어 입에서</li> <li>· 우웬도 무시고 쓴사탕 마니아더 무시대고</li> <li>· 뭐 존일이 없어. 내가 아픈게 어디가서 뭐라고 하지 못하고</li> </ul>

〈표 1〉 여성노인의 슬픔(계속)

중심의미	주 제	원 자 료
노화로 인한 신체·생리적 변화	자신의 신체적 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도 못먹고 이를 허물었으면 좋겠는데</li> <li>· 밥도 묵고 싶어도 제대로 못묵고</li> <li>· 소화가 안되 죽을때 까지 이약을 먹으라나</li> <li>· 아무리 거시기 해도 안돼야. 그전 거시기 보담도. 그냥 소변나오데끼 나와부러.</li> <li>· 아픈 것이 켈로 문제지 ... 고것이 제일 문제야</li> <li>· 오늘은 뒤가심도 막걸리 어깨들이랑</li> <li>·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퍼 쉬시고</li> <li>· 이런데 아프고 근게 애기를 일곱을 낳는데 전부 허리가 아퍼서 낳아노니까 ?</li> <li>· 이빨도 다 빠져 붙었어 그래갖고 틀리 했지 그것도 맘에 안 들어 아프고</li> <li>· 저녁이면 아파 잠을 못자 무릎도 아파갖고 그러고 고생을 했은 게</li> <li>· 조리를 못하니까 남은 것이 골병만 터져 갖고 맨 사방이 아프고</li> <li>· 큰 아들 여울 때 요로코 당뇨가 와 부렸어 신경쓰고 글라해서 왔구만요</li> <li>· 허리가 애려 부려</li> <li>· 밥 입맛 없어 밥을 못먹는데... 그러니 죽지</li> <li>· 나가서 외출을 하고 와도 자기 몸이 맘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백프로 다르다 그거야.</li> </ul>
	기억력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시 하나가 생각이 나야 읽고 싶지? 그니깐 자연히 책이 싫어져.</li> <li>· 이젠 귀도 차차 먹울라 하요. 쉬는 시간이 많아요 잠자는 시간이 많아요. 애기가 되가드만.</li> <li>· 인자 나이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li> <li>· 인제 늙은 책도 보고 뭐도 하고 뵈도 하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늙으니깐 안 뵈는게 문제가 아니고.... 다 잊어버려..</li> <li>· 한글 읽으면 앞에 멀 읽었는지. 몰리 그러니 읽고 싶고 싶은 생각이 나겠소?</li> </ul>
	숙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늙기만 허른 폭 잡았으면 쓰것어</li> <li>· 저녁에 잘라든 그렇게 잠이 안와</li> <li>· 옆에가 있으면 잠도 못자 잠도 혼자 잔 버릇이라...잠 좀 폭자왔으면</li> <li>· 피곤한게 잠이나 폭자야하느니 눈이 잠안들고</li> </ul>
배우사에 대한 불유쾌한 추억	잊어지지 않는 남편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여자랑 완전 7년을 동거하다가</li> <li>· 근데 젤 어려웠던거시 그거 고통스럽고 또 여자로서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봤다는거. 진짜 이두 말할 수도 없구요.</li> <li>·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근디. 잘 살아요.</li> <li>· 남편이 하도 바람을.. 바람 나니깐 점혀러 가자 글은 거그도 따라가고..</li> <li>· 젊어서 당신이 외도를 했다 라는 그것. 오로지 죽을까 시프기만 하죠..</li> <li>· 마흔 넷인가 된게 바람편다고 딱 피워부네 바람피워 탕진했지</li> <li>· 바람을 피우가지고 자기가 머 퇴직을 해 버린다든가</li> <li>· 신랑이 마누라 거스기 해서 애먹인다고 그 집이 어디 어딘디 좀 같이 따라가 주시든 되겠다 글은 또 따라가고.. 잡으려 안 간데가 하나도 없이..</li> <li>·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서 조금만 머하든 두드러 패고, 바람나서 통집에 안 있고.</li> <li>· 어찌 술 묵고 여자데고 들어파 우리 애기들 못살게 굴고</li> <li>· 여자 뒤따라 다니다가 이제는 내꿈지 잡고.... 죽어라 속이 썩었지</li> <li>· 영감이 미운짓거리하고 그러든 슬픈제</li> <li>· 우리 영감 바람피우고 내가 뒤치닥거리나 하다가 이렇게 휘고</li> <li>· 웬수는 입이 뾰 막혀야지 죽어도 싸</li> <li>· 인자 이렇드만 남편을 못 잡고..그러나다 돼졌어</li> <li>· 조금 몸이 건강하다보니까 또 헛 짓을 하고 하드라고요.</li> <li>· 퇴직금까지 잡혀분거여. 조야하다 보니까 돈을 쓰니까 돈아니든 그런 여자들이</li> <li>· 하든 하루계의 여잔데 아조 피를 빨아먹 대기하거는요 빈대가 빨 듯이</li> <li>· 계집 때문에 이 영감남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li> <li>· 이것이 내 운명인가 한다 한디 팔을 비어불고라도 솔직히 도망이라도 가고싶고</li> <li>·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그런 관계를 맺어 갖고 있는가</li> </ul>
	남편의 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게 가정을 모르고 내 팽개치고 살았다우. 그러든 죽이도록 밍지만은.</li> <li>· 남이 가자든 따라가고 오자든 따라오고 무얼해야 할지도 모르고</li> <li>· 돈을 벌어다 준게 그걸로 풀칠하지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안주고 살라고 쳤지</li> </ul>

〈표 1〉 여성노인의 슬픔(계속)

중심 의미	주 제	원 자 료
배우자에 대한 불유쾌한 추억	남편의 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제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산다니까 먹여주지도 않았구려</li> <li>· 병원도 있는디 안 대려가고 참 기가 막힌 노릇이구려 그것도 남자라구</li> <li>· 좋은 집을 나두고 이렇게 오막살이로 쫓겨나온거시 머이나.</li> <li>· 지금 암것도 없이 요것만 갖고 나와서 사니? 그 남자대가리는 어디 갔어</li> <li>· 전달로 산거야 넘 존일만 시켜주고</li> </ul>
	남편으로부터의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 하자는 대로 안 하니께, 그래 가꼬 재산 딱 없애 불고 욕을 까불었어...</li> <li>· 나를 함부로 대해부렸거든 그냥 인제 늙은께</li> <li>· 내가 잘못 했는갑다 하고 한 마디면 하곤 되는데, 그지 자기 주장을 세우고</li> <li>· 내의견과 일치안들 때 죽겠다. 잔 불패가 많아지니까</li> <li>· 너무 무시하는 사람, 마누래를 도외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 되져야 되 ..</li> <li>· 못 당할 수도를 당하고 인공때라고 하곤 몸서리가 칠정도로 그러고 살았제</li> <li>· 속상할 때는 아저씨한테는 달랑거리론 달랑거리한다고 어쩔 때는 맞고, 그래가꼬</li> <li>· 아주 진짜 참말로 구겨진다는 것이 말로 못하게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고,</li> <li>· 양케라도 그냥 인제 막 소리질러 막 그냥 나를 무시할 때...그렇게 무시한당께</li> <li>· 하지 마라고 했는디 듣도 안하고 허지 말라고 하곤 때릴라고 달라들고,</li> <li>· 그 자존심을 꼭 눌러버리고 할 때, 그러곤 인자 조금 물론 여자는 어쩔중부라.</li> </ul>
자녀에 대한 연민	무성의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지그들을 얼마나 안아 주었는디 이렇게 허리가 휘도록</li> <li>· 느네들 즈그 들이 자런 줄 알고 내 눈에서 눈물을 짜내</li> <li>· 돈도 조금만 주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였는데</li> <li>· 막내 여올 때가 제에 쓰렸지</li> <li>· 아들 땀새 못살겠다 아조 술을 먹어 땀깡 놓고 어디다 대고</li> <li>· 자식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절대 자식들이랑 합치지 말라고</li> <li>· 아들도 딸도 필요 없당께.</li> <li>· 내가 아퍼가지고 내가 또 지기들 집 가면은 안돼지..</li> <li>· 도라고 하곤 말은 못하구 눈치만 들여다 본다우</li> <li>· 세상이 한달에 전화한번도 안하는 년이나· 손지가 5학년 4학년 그러거든. 큰께 좀 더 멀어지드만. 지그들이.. 어렸을 때는 가까이 왔는데 그놈들은 더 멀어져.</li> <li>· 아프다고 병원에 갈랑께 돈좀 도려 히곤 얘기들이 많은께 안주고</li> <li>· 아들이 용돈 안주고 그러곤 마음이 항상 아프고</li> <li>· 응 자식도 그래. 그런갑다 하고 접고 살아야지.</li> <li>· 자식들한테 '나 아프다' 그러면 금방 가서 약이 사지것소.</li> <li>· 지그들이 그냥 전화하면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사무적인 어투로 흥내내심) 말하는데..... "할머니 보고싶어요 사랑해요"하는디. 그것이 그냥 입에 붙은 말이.</li> </ul>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도 안하고 있고 가꼬 아파 애타져 죽겠네. 딸이 지금 막둥이 딸도 스물... 설 셋슨께 아홉 목은거 있거든.</li> <li>· 그것이 속으로는 그것이 그놈 걱정이 되어서 참으로 죽겠데요. 잠이 안와. 그것만 생각하곤.</li> <li>· 내가 죽더라도 저것들을 어떻게 처분해 놓고 가야 쓰것는데</li> <li>· 돈만 많이 이쓰곤 우리 아기들 다 못산께 잘살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li> <li>· 머슴애들이 결혼도 안하고 있고 그것이 애가 터져 죽었어.</li> <li>· 방도 치우도 안하고 심란하게 보나마다 살 것인다. 저 혼자 살몬 어떻게 살아</li> <li>· 우리 자식놈이 공부 안해 죽으라고 말 안듣고</li> <li>· 지가 부모있을 때 결혼을 해야지. 혼자 어떻게 잡잡하게 사난 말이예요.</li> </ul>
	자녀의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래살몬 자식이 먼저가 자식이 먼저가 버려 죽일놈</li> <li>· 오래 살몬데 문제는 자식이 갔다고 밥 못먹고</li> <li>· 자식이 딱 하나 있는 자식이 죽으론 정신이 더 오락가락해부려. 그럴 꺼 아니</li> <li>· 내 한평생을 살아싸는거는 소설을 작가라면은 일편갈고는 안되고 2,3편써야할.</li> <li>· 말이 자식은 가슴에 묻는 다는 말이요 가슴에 묻는디고..</li> <li>· 사는게 아퍼 쓰리도록</li> <li>· 슬픈 것이 한정도 풀정도 없지</li> <li>· 어쩔 때는 혼자 기도하다가도 눈물 날 때가 있어요.</li> <li>· 오래살몬 사람은 앞에 자식들도 보내고. 그것이 제일 걱정이여.</li> <li>· 하나나 있는 자식이 죽으론.. 오직허것오.</li> </ul>

〈표 1〉 여성노인의 슬픔(계속)

중심의미	주 제	원 자 료
자녀에 대한 연민	자녀의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따 대고 말도 못하고 기양 눈물이 앞을 가리고 걸어갈수 도 없고</li> <li>· 힘들때는 어디가지도 못하고</li> </ul>
후회스러운 운명	힘겹게 사는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찮다...힘도 하나도 없고</li> <li>· 내가 이제 이세상 끝내른 쓰졌다. 이런 생각이 참 있을꺼예요.</li> <li>· 너무 진짜 그야말로 그 환자한테 시달린다는 거 말도 못해 못살겠데요.</li> <li>· 무지 무지 고생했지 안해본 고생이랄까 없어</li> <li>· 비도 논도 맞아가며 하루도 놀아본적이없어 (고생)</li> <li>· 사는게 사는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을상이었지</li> <li>· 생활이 이러니까. 서른살에 혼자 되었잖아요. 애기 셋데리고. 스물다섯에 시집</li> <li>· 안해본 지꺼리도 없고</li> <li>· 애들은 많고 너무 집에 12년을 살다보니까 힘들드라고요</li> <li>· 여자혼자서 간 것이 그렇고 고생이었다구</li> <li>·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자식들 갈키다보니까 힘들고</li> <li>· 일을 할라든 마음은 젊은디 일을 못하잖어. 힘이 딸려가고는</li> <li>· 나이가 먹어가지고 뭐를 못하겠네. 그래가꼬 정신할라 쪼까 헛갈린다 달이요</li> <li>· 진짜 쪼들여지게 고생을 했어. 나혼사 있을 때.</li> <li>· 힘들다는거 말로 할 수가 없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살고</li> <li>· 힘들었지요. 힘들고. 이제 어린애들 키울때</li> <li>· 그니깐 한번 죽어버려오니깐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사는 것이여.</li> <li>· 더 이상은 못 견디 죽어버려야지</li> <li>· 술도 못 묵고 담배도 못 묵고 춤도 못 추고 인자 그래 암전하게 살아야 한다...</li> <li>· 아~좋은 때가 좋을 때가 없어. 맨나 힘이 안좋아.</li> <li>· 아들들이 잘 된것도 아니고 뭐 보잘것이 하나도 없어. 돈 벌여놓은 것도 없고.</li> <li>· 나이도 뭐고 귀찮구만 이렇게 눈도 안보이고 뭐이든 힘이 없어</li> <li>· 이제는 자신이 통 없대... 전혀</li> <li>· 지신도 없고 빗을 무른게 자신도 더 없고 모두다 고물이야</li> <li>· 참 싫어 오래사는 것.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야지</li> <li>· 힘이 없으께 놈의 돈도 빌리지 못해</li> <li>· 어찌고 어찌고 한다 그냥 너무 피곤하고 산다는게 짜증 나고 9 일.</li> </ul>
	잘못 살아온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 혼자 그렇고 살라고, 정상적으로 살라고 노력하고 본께로 이제는 늙어가꼬는 아무래도 난 잘못 살았소</li> <li>· 니들이 그러냐~ 참 어찌든 그래질까? 난 그리못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더 회생했어야했는데.</li> <li>· 뭐 잘 된 것이 미래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같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잘못했어.</li> <li>· 셋째 아들도 먼저 보내고 내가 무슨 열치로 산단말이나! 후회가 된다</li> <li>· 지그들이 능력이 없어 내가 가르치지를 못해서 좀더 가르쳐야하는데</li> <li>· 배움이 부족하고 좀 그 언행에 좀 저기 할 때에 내가 실소리 하지 말아야했는데</li> </ul>
	복없이 태어난 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께 나같은 사람만났다고 그러고 있어. 복이 없으께 내가</li> <li>· 금께 자기가 내 복이 니가 복이 없으께 나같은 사람 만났다고.</li> <li>· 나같이 고독하고 못난 사람이 있으라고(불운)</li> <li>· 나는 처음부터서 복이 없는 모양이여. 행복이 없어.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한 빛이 있어야제 정말 어렵게 살아가꼬.</li> <li>· 남편복도 없지. 자식복도 없지. 형제간 복도 없지. 복이란 이렇게 없네.</li> <li>· 내가 성공을 안해와서 빛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복이 없으께.</li> <li>· 내복이 그런게 니 팔자가 그리께 이찌겠나.... 듣기 싫다</li> <li>·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신이 죄가 많다는 걸로</li> <li>· 뭐시 다 부모복도 없어 가지고. 나는 어찌 부모복도 없어라우.</li> <li>· 복도 지지리 없고</li> <li>· 아이고 참말로 된 놈의 복도 이려고 없는가 몰라라우. 세상에 부모복도 없지.</li> <li>· 여의은 복이 없어서 돈도 못벌고 조금밖에 못 내놓는다</li> <li>· 울 엄니 닳아가꼬 부모복이 없어가고.</li> </ul>

〈표 1〉 여성노인의 슬픔(계속)

중심 의미	주 제	원 자 료
후회스러운 운명	복없이 태어난 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런 장사를 참말로 안 시킴이라고 했는디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모두가 니 운명인가. 내가 복이 없는가 근다</li> <li>· 지금도 니가 부모복을 못 타고 나서 그런거지....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li> <li>· 행복이 뭔지 몰라 아니 없어 그런거</li> </ul>
	삶에 대한 허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만히 가서 보든 안죽고 살고 죽는다는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임. 이것이 인생인 감다. 허무한 이 세상이며</li> <li>· 금덩이하고 쓰레기하고 바꾼 폭이며. 그래 가고 싹 없어져부려. 이게 웬꼴인가</li> <li>· 나이가 들어가꼬 있는 게모 나는 인제 인생이 다 된 것 매너여. 인생이</li> <li>· 난 어찌나 즐거운 것이 죄금도 없어...애를 쓰며 살았건만</li> <li>· 너늬어 빠져 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어찌고 하든 슬프고 어찌고 하면 허망하다</li> <li>· 누군든지 평생을 살면서 자식들 키울 때 안 받는다 하고 키워야지. 그래도 행여 니가 그럴라디야 하든 실망이커.~</li> <li>· 등위로 허리가 아픈디 인제 쪼개 살만하니까</li> <li>· 미래가 내 생각에 보잘 것이 없소. 아무리 봐도.</li> <li>· 살아온 것이 허망하고 침침해</li> <li>· 아니고, 내가 늙었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되부러</li> <li>· 언제까지 살라고 했으면 어찌겠어. 죽는 것 종이 한 장인디.</li> <li>· 이롭게 죽으라고 고생민 하고 건다니</li> <li>· 인간이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려서 참 기가 막힐 일이야</li> <li>· 인자는 힘도 하나도 없고 그냥 재미도 없고 막 그래</li> <li>· 잊어 버려 부렸어... 그래서 우리는 물거품이 되 버렸어.</li> <li>· 저렇게 안 죽고 근게 하나도 재미가 없구려</li> <li>· 죽을란가 안죽어야 할텐디.죽으면 허탈감이 있조 아무래도 그래서 살았으면 한</li> <li>· 평생 녀를 위해 살았다고 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산거 별로 없어. 허무해</li> </ul>
불확실한 앞으로의 삶	희망이 없다는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분 겁나게 안좋아 도움이 안된단니까 이젠 아무 희망 없어 살아있는게</li> <li>· 내가 피곤하고 몸이 지치니까 내일은 없어 지금 생각도 못하조</li> <li>· 땀이 아파 죽겠다 막상 저렇게 되고 보니 희망도 쪼개도 없고</li> <li>· 일은 마음민 있게 육신은 인떠르고 원래 기지고 있는 기술도 없고</li> <li>· 절망에 빠져갔고 절망 속이제 캄캄한 암흑이고</li> <li>· 찬 것이 없어 하나도 채워진 것이 없단니까 앞이 절망이며</li> <li>· 희망이라니 지금껏 암흑 천지라서</li> </ul>
	혼자라는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때는 힘들었응께. 나 혼자 남게 된께.</li> <li>· 그런디 저녁에 딱 일 끝내고 잘라고 하면은... 결국은 누구나 다 혼자여</li> <li>· 나 혼자다는 거. 아무리 잘 해도 뭔가 비운 마음을 채울 수 없제.</li> <li>· 너무 긴세월을 혼자 살다보니 입에서 군내가 나지</li> <li>· 잘안되. 하는게 없어 허전하고 심정이 불편하구려</li> <li>· 문에 들어올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는 거. 그게 쥔 안 좋데요.</li> <li>· 밤에는 아무도 없어 적적해 이게 힘들어 혼자라는 것이</li> <li>· 어디 특별히 나갈데도 없잖아. 목욕이나 갔다오든 집안에서 책이나 보고</li> <li>· 간식을 받는다거나 누가 그렇게 주시를하는가 하나도 없거든.....</li> <li>· 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것은 여행이라도 갔다 왔을 때 아무도 없으께</li> </ul>
	경제력이 없다는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괴롭고 힘들고 대우도 별라 못 받고 그때 시절은 가난해서</li> <li>· 늙으면 돈이 있어야쓰겠다 근다 그것이 잘안되</li> <li>· 돈 심이 겁나 존갑서.. 거 심 없으면 어찌겠나 몰라</li> <li>· 돈이 문제지 돈 때문에 수명이 이렇게 단축이 되어서 안되요</li> <li>· 사는 것이 만족이 없는걸 어찌 그나문 집을 홀랑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아</li> <li>· 암것도 없이 이불하고 술단지 하고, 심심한게 텔레비가지고 오고, 내가 써야한다는 필수품은 쓰는데.</li> <li>·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사표내고 퇴직금타서 다 날리고 하도 암것도 없으께</li> <li>· 10만원으로 한달 살기 기가 막히구려</li> </ul>
	죽음을 맞이하는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많이 생각해지. 죽는 다는 건 좋아.</li> <li>· 길바닥에서나 죽지 않아야하는데</li> <li>· 죽기를 좋아했어.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보며 새파라니 죽으면 좋겠다.</li> </ul>



〈표 1〉 여성노인의 슬픔(계속)

중심이미	주 제	원 자 료
불확실한 앞으로의 삶	죽음을 맞이하는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얼른 죽어서 얼른 죽어 붉은 쓰것다 했는데</li> <li>· 아퍼서 누우니까 죽을때가 쪼개 걱정스럽게</li> <li>· 자식을 하나라도 먼저 보내면 얼마나 성가셔. 걱정인게 하루 속히 갔으면 해.</li> <li>· 인간은 왔다가 가는 것. 그래서 죽는 것 밖에 없어</li> <li>· 잠자다 딱 가른 쓰것다 그런생각밖에 없어</li> <li>· 죽는다 해볼론 딱 종이 한 장드는 것 여기고. 죽는 것 좋아.</li> <li>· 죽을 날이 다가왔다 생각하니까 오싹하다</li> <li>· 죽을 때가 되몬은 얼른 죽어야제 쓰것드마는</li> <li>· 참 요새 그걸 가만히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거보면 슬퍼</li> <li>· 겁난다. 똥을 싸서 불이니 나도 저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쩌나</li> <li>· 나는 그런 병이 없어 순조롭게 죽어야할텐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니까</li> <li>· 오늘 아프다 내일 죽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지</li> </ul>

첫 번째, 여성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은 〈노화로 인한 신체·생리적 변화〉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남편의 불건강, 자신의 신체적 고통, 기억력 상실, 숙면의 어려움의 5가지의 주제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퇴화로 건강이 약화되어 신체 생리적 변화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어 만성질환의 증상을 가져온다. 즉 신경기능의 쇠퇴로 정신기능의 노쇠, 기억력 쇠퇴, 수면장애 등 기능적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신체기능의 쇠퇴는 체력의 감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신체적 이상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노화과정에 따르는 신체기능의 저하, 역할의 변화,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및 상실감, 고독감, 우울, 절망감, 슬픔 등은 여러 양상의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Brunner, 1988). 그 중 특히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쇠퇴는 노년의 삶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게 된다. 감각기관의 전반적인 쇠퇴와 함께 다양한 신체기능도 저하되어 전반적인 활동이 감소되고 특히 수면시간과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 그들의 인지기능과 정서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romley, 1992, Kim trans.)

한국노인문제 연구소(1984)의 조사결과 노인의 가장 큰 관심사나 걱정거리는 건강에 관련된 문제였고 가장 큰 소망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노인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평균보다 2-3배가 되고 우리나라 노인의 60-70%가 만성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만성노인건강문제의 양상은 장기간의 지도와 남겨진 육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반복되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1996).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자신과 남편과 자신에 대한 불 건강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너무도 힘들게

지난 시간 살아왔건만 이제 살만 하니까 병이 들어 죽으란 말인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소화가 안 되 밥 한 숟 입에 넣지 못하고, 온 뼈마디가 쭈서대 밤이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나, 그들은 조리할 수 없다고 한다. 살아 생전 남은 것은 곧병뿐이라며 뭐니뭐니 해도 몸이 아픈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며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여성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은 〈배우자에 대한 불유쾌한 추억〉으로 확인되었으며 잊혀지지 않는 남편의 외도, 남편의 무능력, 남편으로부터의 무시의 3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상호의존도가 매우 증가하는 시기도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존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부부란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면서 일생을 통하여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살아온 남녀가 인격적, 심리적으로 적응해 가는 인간관계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요하는 관계이다(Kim, 1994). Antonucci(1985)는 노년기는 생활범위가 가족에게로 축소되는 시기로 부부나 자녀간의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영향력이 커서 긍정적인 결혼관계는 부부의 내적인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며 그 어느 생활 주기의 단계보다도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적이고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오늘날 핵가족화로 인한 사회변화로 부부관계가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는 것과 달리 과거 한국 전통사회에서 부부관계는 그다지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으며 한국가족에서 중심적인 가족관계는 자녀중심인 부자관계였으며 부부관계는 부자관계를 위한 관계로써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많은 구속을 받고 살아왔다.

본 연구 참여자 역시 지난 젊은 시절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함께 살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밥 한번 제대로 먹여주지 않고 전달로 살아온 남편에 대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여덟종부라 생각하며 자존심을 팍 눌러 버렸지만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버렸던 남편에 대한 슬픈 기억으로 자신의 젊은 시절은 다 잃어버렸다고 거듭 말했다.

세 번째, 여성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은 <자녀에 대한 연민>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성의한 자녀,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 자녀의 죽음의 3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서양과 달리 부모, 자녀 중심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족주의 적이고 가족에 의존하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 내향적이고 수동적인 의존성이 많으며 특히 가족관계가 불안정할 때 심리적 적응문제가 야기하게 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수행해온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상실과 역할부재로 오는 소외감과 좌절감,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경시하거나 천대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무성의한 태도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소외감, 고독감으로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Jeong,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자녀에 대한 섭섭함과 걱정스러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입에 들어 있는 것 빼서 즈그 들 입에 넣어주고 내 몸에 걸친 것 벗어 입혀주며 허리가 휘도록 안아 키웠건만 그들의 무심한 행동에 홀로 눈물 짓는다. 그러나 아직도 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죽으면 저것들이 어쩔거냐 하며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을 챙기며 한편, 먼저 보낸 자녀를 가슴에 묻고 그 가슴 끌어 내리며 또 한번 짓는 진한 눈물 안에서 자녀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여성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은 <후회스런 운명>으로 힘겹게 사는 일상, 잘못 살아온 일상, 복 없이 태어난 운명, 삶에 대한 허무감의 4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는 지나간 일생에 대한 후회와 불만으로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하며, 감정적 무감각,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조심성 증가, 적응 불완전으로 인한 불안, 초조, 고독감, 의심과 질투심의 증가, 인생의 낙오자라는 심리 등의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Gwak, 1993)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생애에 대해 후회하고 실

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절망하게 되어 이들은 과거의 잘못에 너무 집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위축하게 되며 이때 다른 사람이 관심으로 중재하지 않으면 계속 절망상태에 빠져 생활할 수 없게 된다(Yoon, 1985).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야말로 무지무지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던 건 잘못된 일 투성이라며 한숨 짓는다. 복 없이 태어난 자신의 운명에 원통해하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암담해하며 왜 인생이 이러해야 하는지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여성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은 <불확실한 앞으로의 삶>으로 확인되었으며 희망이 없다는 것, 혼자라는 것, 경제력이 없다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의 4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과 죽음이 가까워 오를 자각할수록 지나간 생을 되돌아보며 회상을 하게 된다.

Hwang(1990)의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조사연구에서 건강문제(25%)와 자녀문제(22.9%) 외에 그들은 경제적 문제(6.9%), 고독감(8.6%)로 나타났으며 67.6%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는 노인은 69.2%로 나타나 대다수의 노인들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여자 노인들이 남자 노인보다 슬픔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과거의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Hong(1986)은 현대 노인문제의 정책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신체적 변화는 인간의 정신적 구조에 변화를 야기해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 및 경제상 불안정에 대한 걱정,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흥미감퇴, 활동력 저하 같은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우천지가 컴컴한 암흑 천지라고 생각하며 심한 절망감에 빠져있었으며 자신이 혼자라는 것이 적적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에 마시막으로 자신을 지탱할 힘마저 잃어버려 오래 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Park(1997)의 연구에서 한국노인의 자녀 걱정(19.3%), 경제적 어려움(14.6%), 배움지여의 갈등(12.3%) 문제는 신체적 건강문제와 더불어 한국노인들

의 생활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우울은 비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인 반면 슬픔은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슬픔의 감정이 빛나가면 자기 비난과 우울의 감정을 가지게되며 이는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Kim, 1996). 오늘날과 같은 젊은이 시향적인 사회에서 노인들의 신체기능의 저하 및 경제적 궁핍은 고립감, 우울, 상실감, 무의식, 슬픔 등의 감정을 유발시켜 이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Ryan & Patterson, 1987)

이같이 노년기는 신체기능의 약화, 자녀문제, 경제적 문제, 가까운 사람의 상실 등으로 슬픔의 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은 전통 가족체계와 윤리관의 붕괴와 같은 사회 문화적 변화로 신체적 건강상실과 더불어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 2. 여성노인 슬픔에 대한 간호중재방안

첫째, 여성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 생리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슬픔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화과정에 따른 변화를 중재하여주는 간호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노화과정의 변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돌보기 위한 노인 의료대책을 위해 노인 건강 담당 전담 부서를 설치해 노년기 건강을 상담,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서여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노인들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가족과 인생에 대한 체념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기억은 자신의 삶에는 행복이나 즐거움이 없었다고 여기며 슬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지지는 노인들이 정신건강에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집단 레크레이션요법, 노인센터 운영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의존의 지지체계가 되도록 유도하며 정신적 지지로서 노인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노인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숙명적으로 한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며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남은 생애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들의 여건에 맞는 여가활동과 오락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노인들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생리적 노화과정에서 파생되는 심리 사회적 노화를 위해 물리적 환경 조성, 사회적 여건의 개선, 정책적인 지원체제를 통해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생활보호대책과 적절한 대우책을 사회와 정부의 차원에서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노인이야말로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위로 받아야할 대상이므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구도 사정하여 만족스런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 노인들의 슬픔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 기술하여 그 의미구조를 밝힘으로써 이들을 위한 간호학적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적 연구설계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내에 소재 한 C 복지관에 다니는 여성노인 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을 사용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한 명 당 방문한 횟수는 5회였다. 자료분석은 Giorgi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의 슬픔의 의미는 첫째, 노화로 인한 신체·생리적 변화로 남편의 불건강, 자신의 신체적 고통, 기억의 상실, 숙면의 어려움, 둘째, 배우자에 대한 불유쾌한 추억으로는 잊혀지지 않는 남편의 외도, 남편의 무능력, 남편으로부터의 무시, 셋째, 자녀에 대한 연민으로 무성의한 자녀,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 자녀의 죽음, 넷째, 후회스런 운명은 힘겹게 사는 일상, 잘못 살아온 일상, 복 없이 태어난 운명, 삶에 대한 허무감, 다섯째, 불확실한 앞으로의 삶은 희망이 없다는 것, 혼자라는 것, 경제력이 없다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여성노인들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신체·생리적 건강문제, 남편과 자녀와의 문제, 지나는 시간과 미래의 삶에 대한 문제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노인과 가족 간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시키고, 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들의 신체적,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독거 노인이나 경제적 지지가 없는 노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노인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n, H. G. (1997). *The lived experiences of loss of elderly women*. M.A.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Antonucci, T. C. (1990). Social Support and Social Relationships. In R.H. Binstock, & L.K. George(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3rds).
- Backer, B., Hannon, N., Russell, N. (1994). *Death and Dying: Understanding and Care*. 2nd. New York: Delmar.
- Bromley, D. B. (1992). *The Psychology of Human Ageing*. 김정희 역. *Elderly Psychology*. Seoul: Seung Won Sa.
- Browning, M. (1995). *Depression, Suicide and bereavement*. In Hogstel M. ed. *Geropsychiatric Nursing*. 2nd. St. Louis: CV Mosby.
- Brunner, L. S. (1988). *Textbook of Medical-Surgical Nursing*. 5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Choi, Y. H. (2001). *Health Care Policy for Korean Elderly People*. Elderly Health Care. Kor Acad Society of Women's Health
- Clayton, P. J. (1990). Bereavement and Depression, *J Clin Psychiatr* 51, Suppl, 34-38.
- Gwak, Y. S. (1993). *A Psychosocial Study on Accommodation to Ageing*.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Korea University.
- Hong, C. S. (1986). *A Policy and Subject for the Problem of the aged in moder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Regional Science, Hanman University.
- Hwang, J. H. (1990). *A Study on Living Status of the Aged in Korea*.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Regional Science, Hanman University.
- Jeon, S. A. (1992). *A Study on Health Status, Life Satisfaction and Powerlessness in Elderly Adults*. M.A. Thesis.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Jeong, T. G. (1995). *A Consultation of Pastral Duties in Crisis*. Dae Han Christian Book Association, Seoul.
- Kim, I. H. (1995). *Phenomenological Approach on Loneliness of the Elderly*. M.A.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Kim, I. Y. (199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Powerlessness of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 Sei University.
- Kim, N. C. (1995). Loss and Grief Process. *J Kor Acad Nurs*. 34(2), 11-17.
- Kim, T. H. (1994). *Gerontology*. Gyeo Moon Sa, Seoul.
- Kim, Y. S. (1996). *A Study on Depression Caused by Sense Of Loss and Its Treatment*.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 I. (1997). *The Effect of Gestalt Group Counselling on Self-Esteem, Relationship Change and Anxiety Reduction*.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 gang University.
- Meng, H. J. (1985). *A Study on the loneliness of the Aged in the Family*. M.A.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 Milliken, M. (1993).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 Guide for Health Care Provider*. New York: Delmar.

- Nauss, B. (1993). *Losses and Grief*. In Loftis P, Glover T, eds. *Decision Making in Gerontological Nursing*. St. Louis: CV Mosby.
- Park, I. O. (1997). *Depressive Factors in the Korean Elderly*.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Park, M. R. (1978). *The Old People's Role and Alienation in the Family*.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Ryan, M. C., & Patterson, J. (1987). Loneliness in the elderly. *J Geronto Nur*, 13(5), 6-12.
- Shin, D. S. (1996).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Status in Elderly*. M.A.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Song, Y. M. (2000). *A Study on Marit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M.A. Thesis. Chung Ju University.
- Yoon, J. (1985). *Geriatric Psychology*. Joong Ang Jeok Sung Publishing Co., Seoul.

- Abstract -

## Elderly Women's Grief

Kim, Kwuy-Bun\* · Lee, Kyung-Ho\*\*  
Oh, Hye-Kyung\*\*\*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find a nursing intervention tool for enhancing elderly women's lives by investigating the causes and the meaning of their grief.

**Method:** This research was derived from a phenomenological tool such as qualitative research design. The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December of 2000 until April of 2001. Through systematic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of five elderly women attending C welfare center located in downtown Seoul the data was collected. Each interview lasted an hour and a half and was arranged five times.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the Giorgi method.

**Results:** ① There was obvious physical and physiological decline caused by aging old; as well as there being spouse health problems, additional physical suffering, signs of senility, and insomnia. ② Further grief was imposed by unpleasant memories of the spouse; infidelity, incapability, and even disregard of her own well-being. ③ Then there was pity for children; unfaithful children, uncertain futures of the children, and early death of a child. ④ Also, regrettable fate, painful daily activities, unreliable factors, bad circumstances, and feelings of emptiness were reported. ⑤ Finally, anxiety for the future; a sense of despair, loneliness, economic hardship, and the fear of imminent death increased grief levels.

**Conclusion:** A variety of programs and social meetings for the elderly to overcome their physiological or psychological crisis should be substantially develop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implement the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women, special consideration whether on the governmental level or the personal level, should be devoted to the elderly who live without any financial support or social concern.

**Key words :** Elderly Women, Grief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Researcher,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